

진도군, 추석 명절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

가축질병대책반·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방역차량 최대한 동원 농장 주변·도로 소독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성묘객 증가로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은 명절 기간 동안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대책반을 운영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철저한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가용 가능한 방역차량을 최대한 동원, 농장 주변과 도로 등을 소독하고, 농가별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차단

할 계획이다.

최근 축산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제안형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억제를 위해 진도군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귀성객은 축산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농장 관계자는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은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진도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추석 명절 군부대·경찰·소방서 등 위문 방문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성)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6일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을 위문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제8539부대 제3대대, 회진 정남진소초, 장흥소방서, 회진 해경과 출소를 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조석훈 장흥부군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국토방위 및 치안 유지 등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부대 장병은 “매년 명절 때마다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와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군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각종 훈련과 향토방위 및 대민지원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군·경 대원들을 위문 격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 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소 자동목걸이로 안전하게 축산작업하세요”

2천개 추가 지원...안전 축산환경 조성 호응

해남군은 안전한 축산작업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를 추가 보급한다. 군은 올해 9,800만원을 투입, 군내 71농가에 1,400개의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를 보급한 바 있다.

군은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감안해 전라남도에 건의,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2,000개의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는 간단한 교체장치 조작으로 소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 예방백신 접종이나 체혈, 질병 예방시 축산 농가의 부상을 막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료 배급 시 개체별 균분한 사료 섭취가 가능하고, 약한 개체 보호와 인공수정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 등 전반적인 개체관리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추석 당일 ‘정남진 전망대’ 무료 개방

올해 처음 추석 명절 당일 운영...무료 개방 혜택도 제공

왔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휴관일 없이 정상 운영할 방침으로, 무료 입장의 혜택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추석 명절 기간 정남진 장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특량만의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내려졌다.

추석 당일(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모든 시설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정남진 전망대는 1층부터 8층까지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10층에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전망대 내 카페 등 편의 시설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야간에는 전망대의 LED 조명과 더불어, 대중스타 조각공원 및 우산도 관광지 일원에 조성된 ‘불빛정원’을 밤 10시까지 점등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추석 당일 휴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연휴 내내 운영을 결정했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정남진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이 올해 추석 명절 당일 정남진 전망대를 무료로 개방한다.

2011년 개장한 ‘정남진 전망대’는 군조례에 따라 설날과 추석날을 휴관일로 지정해

진도군가족센터, 슬기로운 노년을 위한 행복 밥상 호응

진도군가족센터(센터장 조경순)에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노년을 위한 행복 밥상~!!’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프로그램은 남성 퇴직자들에게 건강식 및 기본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를 대비, 부부간 친밀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한 교육생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제7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 개최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별 협력 강화



지난 5일 강진군은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2층 회의실에

서 「2022년 제7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강진경찰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등 7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기관 간 게임 필요 사례에 따른 업무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올해 7차례 개최한 강진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는 강진군과 강진경찰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에 따라 강진교육지원청, 각 읍·면사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0여 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관별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